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문학 출제 빈도

학년도	현대시 작가 (출제 '작가' 빈도) 빨강-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많은 작가 / 파랑-상대적으로 적은 작가	
2017 6월	박두진(2회)- 「향현」	강은교(2회)- 「우리가 물이 되어」 (당시 EBS 수특 연계)
2017 9월	윤동주(9회)- 「병원」	박목월(4회)- 「나무」 (당시 EBS 수완 연계)
2017 수능	김수영(6회)- 「구름의 파수병」	
2018 6월	조지훈(6회)- 「고풍 의상」	이수익(2회)- 「결빙의 아버지」 (당시 EBS 수특 연계)
2018 9월	김현승(1회)- 「플라타너스」 (당시 EBS 수완 연계)	정지용(5회)- 「달」
2018 수능	이육사(5회)- 「강 건너간 노래」	김광규(3회)- 「묘비명」 (당시 EBS 수완 연계)
2019 6월	박봉우(1회)- 「휴전선」 (당시 EBS 수특 연계)	배한봉(1회)- 「우포늪 왓새」
2019 9월	박재삼(5회)- 「추억에서」 (평가원 현대시 중 유일 3회 출제된 텍스트)	
2019 수능	유치환(4회)- 「출생기」	김춘수(3회) -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당시 EBS 수특 연계)
2020 6월	김광균(5회)- 「추일서정」 (당시 EBS 수특 연계)	오규원(2회)- 「하늘과 돌맹이」
2020 9월	김영랑(5회)- 「청명」	고재중(1회)- 「초록 바람의 전언」 (당시 EBS 수특 연계)
2020 수능	윤동주(9회)- 「바람이 불어」 (당시 EBS 수완 연계)	김기택(1회)- 「새」
2021 6월	조지훈(6회)- 「산상의 노래」 (올해 EBS 수특 연계)	손택수(1회)- 「나무의 수사학1」
2021 9월	김수영(6회)- 「사령」 (올해 EBS 수특 연계)	김혜순(1회)-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2022 예비	백석(6회)- 「수라」	김선우(1회)- 「신의 방」

직관적으로 2017 6월, 2019 6월, 2019 수능을 제외하고는 (출제 빈도가 많은 작가 + 거의 없는 작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도 부터는 특히 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심지어 22년도 예비까지.

다수 출제된 작가 중 가능성 있어보이는 연계 작품

수능 특강	정지용-「춘설」	올해 나오면 6회 출제 작가
	김소월-「님의 노래」	올해 나오면 7회 출제 작가
	한용운-「수의 비밀」	올해 나오면 5회 출제 작가
	박목월- 「윤사월」	올해 나오면 5회 출제 작가
	신경림- 「우리동네 느티나무들」	올해 나오면 6회 출제 작가
	서정주-「무등을 보며」 (03년도 9월에 한번 출제된 텍스트)	올해 나오면 7회 출제 작가
수능 완성	김소월-「산 위에」	올해 나오면 7회 출제 작가

-아쉬운 리스트-

- 백석-「두보나 이백같이」 (올해 나오면 6회 출제 작가 but 22년도 예비 평가에 나옴)
- 이육사-「꽃」(18년 수능에 나와서 제외)
- 이용악- 「오랑캐 꽃」, 「그리움」(올해 출제되면 4회 출제 작가로 좋아보이나, 올해 고3 교육청에 2번이나 나와서 제외)
- 김광규- 「상행」(18년 수능에 나와서 제외)

1회 출제된다면 나온다면 가능성 있어 보이는 작가, 작품(EBS 빈도수로 평가)

수능 특강	문정희-「한계령을 위한 연가」	EBS에 9번 등장한 작가
	기형도-「홀린 사람」	EBS에 8번 등장한 작가
	고정희-「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EBS에 9번 등장한 작가(14년 9월 A형에 한번 출제된 작가)
	유하-「빠빠용(영화 사회학)」	EBS에 4번 등장한 작가(애매)
	김용택-「섬진강1」	EBS에 6번 등장한 작가
수능 완성	김준태-「참깨를 털면서」	EBS에 5번 등장한 작가
	천양희-「길을 찾아서 4-명암리 길」	EBS에 7번 등장한 작가

-아쉬운 리스트-

- 박봉우-「나비와 철조망」 (19년도 6월에 나와서 제외)
- 신석정-「꽃덤불」 (EBS에 15번이나 등장했으나 16년도 B형에 똑같은 작품이 나옴)
- 신동엽-「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94년도 수능 2차 이후로 한번도 안나왔지만 네임드가 너무 강함)

현대소설

갈래	작가 출제 빈도수		21년도 EBS 연계 작가
현대 소설	5번 나온 작가	염상섭	염상섭 「임종」(EBS 수특)
	4번 나온 작가	이청준	
	3번 나온 작가	최인훈, 채만식, 이문구, 김유정, 박태원	채만식 「미스터방」(EBS 수특), 김유정 「만무방」(EBS 수특), 이문구 「우리 동네 이씨」(EBS 수특),
	2번 나온 작가	이상, 윤희길, 김동리, 황석영, 오정희, 조세희, 박완서, 이태준, 최일남, 김승옥, 임철우, 김원일, 이호철, 양귀자, 이광수	윤희길 「완장」(EBS 수특), 김동리 「무녀도」(EBS 수완),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EBS 수특), 박완서 「해산 바가지」(EBS 수특), 최일남 「장 씨의 수염」(EBS 수완), 채만식 「미스터방」(EBS 수특), 임철우 「동행」(EBS 수특),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EBS 수완)
	올해 평가원 현대 소설 중 EBS 연계된 작품 (모두 올해 첫 출제된 작가)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EBS 수특 6월), 이기영 「고향」(EBS 수특 9월)

-제 생각-

<보 기>

일제 강점기에 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치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 또한 기차는 공포와 동경의 대상이 된다. 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 생활 터전으로서의 고향 상실이라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였다. 반면 문명개화에 앞선 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 유학을 하거나 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 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 소설에서는 ‘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예비평가 B형] 38번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 예비평가] 29번

14학년도 예비평가에서 평가원은 이광수 「무정」에 대해 시대상과, 당시 사회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평가해 보도록 문제를 구성한 반면에 22년도 예비 평가를 보면 이광수 「무정」에 나타나는 사랑(근대적인 연애)에 대해 평가하라는 식으로 출제합니다.

21년도 6월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농민 쫓겨난을 빼놓고 민담적 특징이 나는 텍스트를 넣어와 ‘재미’에 대한 관점으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21년도 9월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는 달리 정치적, 사회적인 평가를 최대한 회피하는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 20년도 수능 김소진 - 첫 출제된 작가
- 21년도 6월 성석제 - 첫 출제된 작가
- 21년도 9월 이기영 - 첫 출제된 작가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EBS 작품 중 아직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없는 작가이면서 정치, 사회적 평가를 보류하는 텍스트를 골라낼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김훈-「갈의 노래」
	윤후명-「원숭이는 없다」
	문순태-「정읍사」 (04년도 9월에 한번 출제된 작가이기는 합니다.)

고전소설, 고전 시가

갈래	작품 출제 빈도수		21년도 EBS 연계 작품
고전 시가	4번 나온 작품	정철 「관동별곡」, 정극인 「상춘곡」	
	3번 나온 작품	안민영 「매화사」, 정철 「사미인곡」, 박인로 「누항사」, 이황 「도산십이곡」, 조위 「만분가」	정철 「사미인곡」(EBS 수특) 박인로 「누항사」(EBS 수완)
	2번 나온 작품	윤선도 「어부사시사」, 월명사 「제망매가」, 작자 미상 「가시리」, 송순 「면앙정가」, 위백규 「농가 구장」,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안조원 「만언사」, 이이 「고산구곡가」, 이현보 「어부단가」, 정철 「성산별곡」, 정철 「속미인곡」, 윤선도 「만흥」, 권호문 「한거십팔곡」,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EBS 수특), 안조원 「만언사」(EBS 수특), 윤선도 「만흥」(EBS 수특-21년도 9월 평가원 출제)

고전 소설	5번 나온 작품	작자 미상 「흥부전」·「박흥보전」·「박타령」	작자 미상 「흥보가」(EBS 수특)
	4번 나온 작품	김만중 「사씨 남정기」, 작자 미상 「박씨전」, 작자 미상 「심청전」, 작자 미상 「춘향전」·「춘향가」	작자 미상 「춘향가」(EBS 수특-21년도 9월 평가원 출제)
	3번 나온 작품	허균 「홍길동전」, 김만중 「구운몽」, 작자 미상 「전우치전」, 작자 미상 「조웅전」, 작자 미상 「토별가」·「수궁가」·「토끼전」	작자 미상 「전우치전」(EBS 수특-21년도 6월 평가원 출제)
	2번 나온 작품	작자 미상 「유충렬전」, 김시습 「이생규장전」,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작자 미상 「숙향전」, 작자 미상 「임진록」, 작자 미상 「옥루몽」, 작자 미상 「임장군전」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EBS 수특), 작자 미상 「숙향전」(EBS 수특), 작자 미상 「임진록」(EBS 수특), 남영로 「옥루몽」(EBS 수특)

-제 생각-

[2022예비 평가 15번]

<보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재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에,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평가원이 이번에 여성서사인 『박씨전』, 『조보』를 출제한 뒤에 <보기>로 약간은 직설적으로 여성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평이 『심청전』이었습니다. 여성 서사에 대한 언급은 유보했지만, 그래도 고전에서 여성이 주가되는 서사를 낸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BS가 연계가 된다면 아마도 여성 서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EBS에 수록된 고전 소설중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여성이 주동적, 혹은 여성이 주가 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소설) 『숙향전』, 『콩쥐팥쥐전』, 『바리데기』, 『수로부인』입니다.

그 중 『숙향전』은 평가원에 2번 출제 되었습니다. 한번은 07년도 9월, 한번은 15년도 수능이라,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 2020년 11월 26일 배인호 초격차 국어 연구원 박효준(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작성
배인호(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전공) 기획 검수

*추가적인 자료 및 방향성에 대한 자료 제공도 수능 직전 최종 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출제 교수로 들어가신 것으로 예상되는 교수님들의 평소 관심과 논문 분석은 물론, 비평교육-이론교육 등과 같은 최근 학계 내부의 중요한 이슈까지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짚기 자료 정리합니다.